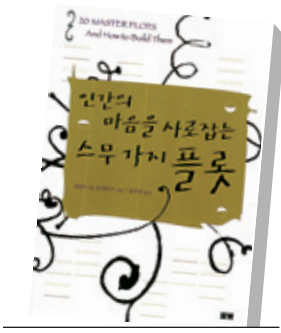


윤남진 REVIEW



로널드 B. 토비아스 지음

4-5단계로 나눈다. 모든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공금증을 유발하고, 관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며(어떻게 될까?), 절정을 거친 후 결말에 이르러 관객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 더 전문적인 논의가 있지만 쉽게 이 정도로 플롯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근본적인 측면에서 플롯은 '인간의 태도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인류는 행동과 느낌의 패턴을 개발했고, 이 패턴은 너무 기본적이어서 지난 5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5천 년 동안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이다. 행동과 반응, 원인과 결과

불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

고백을 하나 하자면 나는 고교시절 문학소년이었다. 청주시내 불교학살회에서 시화전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내 방식으로 각색해서 낸 적이 있다. 대학생이 되어 서울 유학하다 집에 내려와서 보니 그 작품이 액자 그대로 집에 모셔져 있었다. 너무나 부끄러워 슬그머니 가져다 부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모든 사진, 일기, 편지들과 함께 태워버린 추억이 있다. (이 글은 이제 태워버릴 수도 없으니 그때보다는 내가 감심장이 되었거나 뻔뻔해진 것 같다)

사직을 하고 재충전을 위해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증으로서는 왕초보들이 듣는 글쓰기 과정을 이수했다. '스토리텔링 글쓰기 과정'이었다. 물론 이 교육을 받게 된 데는 추억과 호기심 뿐 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대형서점 경영 코너 마케팅 주제에 서가게 가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란 책들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란 쉽게 말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품의 구매효과(설득)와 구전효과(전파)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한 고객을 타겟으로 하여 설득을 목적으로 발화된 '그럴듯한 이야기'가 마케팅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예를 들자면, 지포라이터 판촉 광고에서 주인공이 총에 맞았는데 죽지 않는 장면이 이어 총알이 박힌 지포라이터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지포라이터에 '부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식이다. 별다른 것 없이 모두 성장판처럼 지어놓은 아파르트 광고를 할 때는 그럴 듯한 이야기가 브랜드(건설회사)마다 많기도 한 것도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에는 구조가 있다. 대체로 이야기 구조를 발단, 갈등(전개), 절정, 결말의

의 사슬구조로 이야기가 짜여진다. 잘 짜인 이야기에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있고, 주인공의 시련이 있고, 조력자가 있으며, 반전과 승리 혹은 실패가 있다. 저자는 플롯의 유형을 몸의 플롯과 마음의 플롯으로 나눈다. 몸의 플롯은 행동의 플롯이며, 긴박감과 놀라운 기대감으로 관객을 보살피며, 마음의 플롯은 등장인물의 의미를 추구하며 인생을 점검한다. 책에서 저자는 돈키호테로 대표되는 '주구의 플롯'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같은 '추적의 플롯', 그리고 구출, 미스터리, 변신, 금지된 사랑, 발견 등 20개의 대표적인 플롯, 즉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들을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나 영화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인류가 5천여 세대를 이어내려 오면서 공동의 경험, 규칙들은 신화의 형식으로 혹은 동화의 형식으로, 오래된 성전의 시적 양식으로 '이야기' 되어왔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원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종교 성전의 이야기일 것이다. 모세의 이집트탈출기가 그렇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서양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붓다의 <타타(본생담)>나 출가에서 성도, 그리고 전법의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동양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속에는 고타만 명상이나 목상, 내면적 체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의 탄생과정과 이 세상으로의 귀환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종교 성전을 도덕률로 가득 찬 교의로서가 아니라 오래된 신화 또는 인류의 근원적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한다. 내친 김에 다음번에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종교와 신화에 대한 책을 둘러볼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육조스님 금강경> 펴낸 원순 스님

“경전 읽으면 못보던 세상이 보입니다”

내년까지 '금강경 오가+일가' 해설서 낸다
독송용 <우리말 금강경>도 함께 펴내

금강경.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콘체는 '다이아몬드 스투라(Diamond Sutra)'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금강경을 소개했다. 수많은 해설서가 나왔는데, 해능 스님 당시에만도 800종이 넘었다. 그런 만큼 널리 독송되는 경전이다.

그런데 어렵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대승불교의 교리와 기본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령 금강경 사구제 중 첫 번째인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즉, '온갖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만 하여도,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에서 막히고 만다. 공극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을 쉽게 보겠다는 것이 욕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냥 어렵게 놔두서는 안 된다.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한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이 금강경 읽기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그 방법은 <금강경오가해>를 하나씩 나누어 현대인의 언어 사용 습관에 맞추어 번역

하고 해설하는 것. 그 첫 번째로 <육조스님 금강경>을 펴냈다.

원순 스님은 경전을 읽는 자세는 비움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견해를 내세우지 말고 집중해 읽는 가운데 마음이 비워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경전을 읽다보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송을 자주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전을 읽으면 못보던 세상이 보입니다."

금강경 뜻풀이 중 권유를 가장 인정받는 저술은 <금강경오가해(五家解)>. 규봉종필, 육조해능, 부대사, 아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스님이 금강경에 대한 찬요(纂要), 해의(解義), 찬(讚), 송(頌), 제강(提綱)을 한데 묶은 것이다. 여기에 조선시대 무학대사의 수제자인 함허득통 스님은 오가해에 자신의 견해를 붙여 <금강경오가해설의>를 펴냈으니, '금강경오가해'라 이름붙일 수 있다.

원순 스님은 <육조스님 금강경>을 펴낸 데 이어 내년까지 '오가+일가(함허득통)' 즉, 여섯 스님의 금강경 풀이를 번역하고 해설을 달아 6권으로 펴낼 계획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읽다보면 원문에 대한 선사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들도 많아

사치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독자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섯 분의 금강경 뜻풀이를 저마다 각각의 금강경 해설서로 독립시켜 책으로 내는 것이 금강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하나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읽기 편한 해설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전을 쉽게 번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역자가 이해한 경전의 뜻을 독자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인데, 원순 스님은 금강경 4구제 중 네 번째,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어시관)'의 첫 구절을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라고 풀이했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은 <육조스님 금강경>과 함께 뜻풀이를 새롭게 시도한 독송용 <우리말 금강경(아바라밀경)>도 이번에 함께 펴냈다. 육조스님 금강경 | 원순 옮김 | 법공양 펴냄 | 2만원 / 우리말 금강경(아바라밀경) | 1만원
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느닷없이 물음표가 맺히는 길이 있다

<시코쿠를 건다>... 88개 천년고찰 잇는 1200km 여정



때때로 느닷없이 물음표가 가슴에 맺힌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

답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최소한 <시코쿠를 건다>

를 읽는 동안에는 답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시코쿠, 88개의 천년고찰을 잇는 1200km 순례길로 유명하다. <시코쿠를 건다>에 따르면, 1200년 전 일본불교 진언종 창시자인 구카이(空海) 스님이 이 길을 걸으며 수행한 것이 시조가 되어 순례길이 되었다. 매년 15만 명이 이곳에 와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례자가 된다. 그리고 시코쿠 순례길에서 죽음을 맞으려는 이들이 있어 1년에 20여명이 이 길에서 죽는다고 한다. 주로 해안을 따라 걷는데, 제주도의 울레길과 비슷하다고 한다.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섬이지만, 면적은 제주도의 10배다.

<시코쿠를 건다>를 읽다보면 시코쿠에 살았던 스님, 마을 사람, 순례자, 바다, 나무, 햇살, 눈, 비 등을

통해 지은이가 일깨운 삶의 새로운 발견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다.

"오래 씹어야 한다. 오래 안 씹으면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적게 나고, 오래 씹으면 굳이 감사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절로 몽게몽게 일어난다는 게 이 이유다. 100번을 넘겨보라. 그렇게 하면 음식을 향해 자주 솟아오르는 찬미의 마음을 그 누구도 누를 수가 없다." (40쪽, 밥을 맛있게 먹는 비결)

"옛날에는, 다시 말해 개척을 하겠다고 인간이 숲을 파괴하기 전에는 아츠케시 만에 굴이 흔했다. 숲이 사라지면서 함께 자취를 감췄던 굴이 숲이 되살아나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99, 산을 가꾸는 바다) "섬에 손님을 위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논의에서도 마을의 노인들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웃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었는데, 내 아버지도 같았다." (250, 자동차가 없는 섬)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저자는 위와 같은 질문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엄습하기를, 그래서 순례를 떠날 준비를 하는 자기를 바라보기를 바란다. <시코쿠를 건다>는 삶이 나

에게 질문해주시기를 바라는 진언 같은 책이다. 시코쿠를 건다 | 최성현 지음 | 조화로운삼 펴냄 | 1만 3800원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 기도: 법륜, 정도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현
4. 굽바니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허안연꽃
5. 허공법문: 김기추, 고려원복스
6. 선방일기: 지혜, 불광출판사
7. 대웅암을 바꾸는 48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8.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9.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10. 불교성지순례(인도 네림): 대연, 이스트워드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Hwa-du 화두
신간! 불조정맥
신간! 화두/Hwa-du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특징: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통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신묘년 제2차 인도불교 성지 및 문화탐방
영혼을 일깨우는 여정, 성지순례
우리 것, 남의 것 치우침이 없는 마음으로 순례코자 합니다
제2차: 불교성지와 인도문화 탐사
일정: 2011.2.10 ~ 2.22 (13일간)
방문지역: 데리, 자이푸르, 아그라, 카주라호, 부다가야, 사르나트 바라나시, 라즈피르, 나란다,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기원정사, 아유디아 등
TEL: 051)808-7370 / 070-7721-0089 [인도, 중국,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